

기적의 맞춤법

띄어쓰기 2권 진단 테스트

정답 및 해설

1. 묻는 ★ 1단원 : ㄴ으로 소리나는 말

해설 앞말의 받침 ㄷ이 뒷말의 첫소리 ㄴ과 만나면 앞말의 받침은 [ㄴ]으로 소리 납니다. 그렇지만 쓸 때는 '묻'의 ㄷ 받침을 그대로 살려서 '묻는'이라고 써야 합니다.

2. ㉓ ★ 1단원 : ㅋ, ㅌ, ㅍ, ㅊ으로 소리 나는 말

해설 'ㄱ, ㄷ, ㅂ, ㅅ'이 ㅎ과 합쳐지면 'ㅋ, ㅌ, ㅍ, ㅊ'으로 소리 납니다. '입학식'은 [이팍식]으로 '사이좋게'는 [사이조게]로 소리 나지만 원래 받침을 적어야 합니다.

3. 윗집, 외갓집 ★ 1단원 : 사이시옷이 붙은 말

해설 두 낱말이 합쳐져서 한 낱말을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ㄱ, ㄷ, ㅂ, ㅅ, ㅆ으로 시작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데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어 써 줍니다. 즉, '윗집'은 [위집]으로, '외갓집'은 [외가집]으로 소리 나지만 사이시옷을 넣어서 써야 합니다.

4. 되었다, 상쾌해 ★ 2단원 : ㅅ, ㅆ, ㅈ가 들어 있는 낱말

해설 세 모음은 소리가 비슷하여 헷갈리기 쉽습니다. '되었다'는 '되엇다'로, '상쾌해'는 '상쾌해'로 고쳐야 합니다.

5. ㉑ ★ 2단원 : ㄹ계, ㄹ 거야

해설 '할지'는 [할찌]로 소리 나지만 쓸 때는 원래대로 써야 합니다. 즉, '㉑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.'가 정답입니다.

6. ㉒ ★ 1단원 : ㄴ, ㄹ 받침이 들어 있는 낱말

해설 '㉑ 귀찮게'는 [귀찬게]로, '㉒ 귀찮아도'는 [귀찬아도]로, '㉓ 귀찮겠지만'은 [귀찬겠지만]으로 소리나지만 ㄴ 받침을 살려 써야 합니다. 즉, ㄴ 받침을 그대로 살려 쓴 '㉓ 귀찮아도'가 정답입니다.

7. 내가 ㅍ 존경하는 ㅍ 위인은 ㅍ 이순신 ㅍ 장군이다.

해설 '이순신'은 성과 이름을 붙여 써야 하며, 이름 뒤에 붙는 말이나 직업은 띄어 써야 하므로 '이순신 장군'으로 적어야 합니다.

8. 어떻게, 낳는 ★ 2단원 : ㅎ 받침이 들어 있는 낱말

해설 ㅎ 받침이 들어가는 글자는 뒤에 자음이 올 때와 모음이 올 때의 소리와 모양이 달라집니다. ①번 문제의 '어떻게'는 [어떠케]로, ②번 문제의 '낳는'은 [난:는]으로 발음 되지만, ㅎ 받침을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9. ㉑ ㉒ ㉓ ㉔ ★ 3단원

해설 '없다'는 있지 않는 것을, '없다'는 그릇 등을 넘어뜨려 속에 든 것이 쏟아지게 하는 것이, '없다'는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등에 대고 손으로 붙잡거나 무엇으로 동여매어 붙어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㉑은 '㉒없어' ㉒은 '㉓없어' ㉓은 '㉔없어'를 빈칸에 넣어야 의미가 자연스러워 집니다.

10. ㉑ 멧혀 ㉒ 같이 ㉓ 전철역 ㉔ 뒷다리 ★ 1단원

해설 ㉑ '멧혀'의 ㅈ 받침이 ㅎ과 합쳐지면 ㅊ으로 소리 나요. 그렇지만 쓸 때는 원래 소리 ㅈ과 ㅎ을 그대로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㉒ ㄷ, ㅌ 받침이 모음 ㅣ와 만나면 ㅆ, ㅊ으로 바뀌어 뒷말의 첫소리로 옮겨져서 소리 납니다. 즉, '같이'는 [가치]로 소리 나지만 원래 받침 ㅌ과 '이'를 그대로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㉓ '전철'과 '역'이 합쳐져서 하나의 낱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 글자에 ㄹ이 더해져서 소리 납니다. 하지만 쓸 때는 ㄹ을 빼고 '전철역'이라고 써야 합니다.

㉔ '뒤'와 '다리'가 합쳐져서 한 낱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침 ㅅ을 넣어 '뒷다리'라고 써야 합니다.

기적의 맞춤 법

띄어쓰기 2권 진단 테스트

정답 및 해설

11. ② ★ 1단원 : 나, 르으르 소리 나는 말

해설 일기의 내용 중에서 '㉠천날'과 '㉡물로리'는 '첫날'과 '물놀이'를 각각 소리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. 하지만 '㉠천날'은 ㅅ 받침을 살려서 '첫날'이라고 적어야 하고, '㉡물로리'는 물의 ㄹ 받침을 닮아서 [물로리]로 소리 났지만 '물놀이'로 적어야 합니다.

12. 반드시 ★ 3단원 : 뜻에 맞게 구별해서 써야 할 말

해설 '반드시'는 '틀림없이 꼭'을 의미하며, '반듯이'는 '생각이나 행동 등이 비뚤어지거나 기울이지 않고 바르게'를 의미합니다. 즉, 일기의 내용상 '반듯이'는 '반드시'로 고쳐야 합니다.

13. ③ ★ 띄어쓰기 특강 1 : 의존 명사는 띄어 써요!

해설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없는 '것, 수, 만큼, 뿐, 데, 지' 등의 의존명사는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. 즉, '데'를 앞말과 띄어 쓴 ③이 정답입니다.

14. ① 관찮아 ② 얹아서 ③ 뚫고 ④ 닳았다 ★ 1단원

해설 1단원 '받침이 두 개인 말'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. 받침이 두 개일 때 자음자로 시작하는 글자와, 모음자로 시작하는 글자가 오게 될 경우 소리가 달라집니다. '①관찮아'는 [관차나]로, '②얹아서'는 [알바서]로, '③뚫고'는 [뚫코]로, '④닳았다'는 [달마따]로 소리 나지만 겹받침을 그대로 살려서 써야 합니다.

15. ① 맞아 ② 짓는 ③ 낫지 ★ 3단원

해설 ① '말이나 답, 사실 등이 틀리지 않다', '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'라는 의미의 '말다'가 들어가야 합니다.
② '재료를 들여 밥, 옷, 집 따위를 만들다'의 의미인 '짓다'가 들어가야 합니다.
③ '병이나 상처 등이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', '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'의 '낫다'가 들어가야 합니다.